LGU+, 카카오M과 5G 스마트 교통 솔루션 만든다

〈모빌리티〉

미래 스마트 교통 분야 서비스 MOU

양사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추진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제공
"대규모 B2B 사업서 질적 성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오른쪽)와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상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5G 기반 미래 스마트 교통 분야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서명식을 갖고 자율주행환경 근간 구축과 새로운 스마트 교통 솔루션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 LG유플러스 최순종 기업기반사업그룹장(상무)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르면 이달 중 차별화된 미래 스마트 교통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LG유플러스의 디바이스, 통신, 유지보수 등이 융합된 서비스·인프라 개발 및 상호 기술 지원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용자용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정보 제공 및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이는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등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울산·광주와 같이 시범 실증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발굴, 차별적 제반 설비 공급 등의 사업 추진 사항을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 공유 플랫폼 및 5G 기반 교통 솔루션 구현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플랫폼 등을 근간으로 하는 차별적 서비스도 선보인다. 양사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영역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는 "카카오 T 및 카카오내비 등 자사의 플랫폼과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를 접목함으로써 한층 고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최순종 기업기반사업그룹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당사의 차별적 5G 네트워크 및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C-ITS, 스마트시티와 같은 대규모 B2B 사업에서 양사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리얼 8K' 올레드 TV, 화질선명도 90% 구현

LG전자 북미 프리미엄 TV시장 공략
美 전문매체 'CEPro' 선정 최고제품

LG전자가 미국 덴버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CEDIA 엑스포 2019'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리얼 8K'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리얼 8K' 올레드 TV를 앞세워 북미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14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 'CEDIA 엑스포 2019'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88Z9)'와 나노셀 TV(모델명: 75SM99)를 집중 소개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美 전문매체 'CEPro'가 선정한 'CEDIA 엑스포 2019 어워드' 가운데 홈씨어터/멀티룸 AV(플랫패널 TV/울트라 HD) 부문 '최고 제품' 등에 선정됐다.

LG전자 8K TV 전 모델은 해상도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해, 화소 수, 화질선명도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가로 7680개, 세로 4320개 총 3300만개 이상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 기준치인 50%를 훌쩍 넘는 약 90% 수준으로 선명한 8K 해상도를 구현한다.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는 화질선명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화소 수를 해상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ICDM는 8K 올레드 TV와 8K LCD TV 모두 출시한 LG전자를 비롯, 8K LCD TV를 출시한 삼성전자, 샤프 등 지금까지 8K TV를 출시한 주요 TV 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은 "LG 올레드 TV는 압도적 화질, 혁신적인 디자인 등으로 세계 최고 TV로 자리매김했다"며 "LG전자는 '리얼 8K' 올레드 TV를 앞세워 美 프리미엄 고객들에게 진정한 8K 해상도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전자, DJSI '가전·여가용품' 6년 연속 최우수

정도경영·위기관리 능력 높은평가

LG전자가 다시 한 번 우수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올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가전 및 여가용품' 분야 글로벌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정도경영과 위기관리, 친환경 제품과 인재 육성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전 등 분야에서는 6년, DJSI에서는 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DJSI는 글로벌 상위 2500여 기업을 경제적 성과와 환경 및 사회 측면에서 평가해 발표한다. 지속가능평가와 사회책임투자 수준을 보는 글로벌 표준 지표다. 60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으면 최우수 기업으로, 상위 10%에 오르면 'DJSI 월드'로 선정된다.

/김재웅 기자 juk@

SK텔레콤, 12년 연속 'DJSI 월드 지수'

12년 연속 편입, 아시아 통신사 최초

SK텔레콤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상위 10% 기업들만 속하는 'DJSI 월드 지수'에 12년 연속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12년 연속 'DJSI 월드 지수' 편입은 올해 편입된 국내 기업 가운데 최장기간 기록이자 아시아 통신사 중에서도 최초다.

올해 'DJSI' 평가는 61개 산업 분야 내 글로벌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신 분야에서는 총 59개의 글로벌 유무선 통신사 가운데 도이치텔레콤, KPN, NTT도코모, 타이완모바일 등 9곳 만이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국내 통신사로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속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경쟁력 ▲뉴 ICT 포트폴리오 성장 전략 ▲ICT 기반 사회적가치 창출 ▲개인정보 보호 ▲인권 및 인적자본 개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탄소섬유로 만든 영상렌즈 '첫선'

삼양옵틱스 XEEN CF 출시

사진·영상 렌즈 전문 국내 중소기업인 삼양옵틱스는 영상·영화 전문 시네렌즈 '씬(XEEN)'의 새로운 라인업 XEEN CF를 공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탄생한 XEEN은 삼양옵틱스가 40여 년간 축적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영상·영화 전문 시네렌즈다.

영상 장비 시장의 트렌드인 '소형화·경량화'를 반영하고 탁월한 해상력을 함께 갖춘 XEEN CF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탄소섬유를 세계 최초로 렌즈 경통에 적용한 풀프레임 대응 시네렌즈다.

XEEN CF는 최신 영화용 카메라에 탑재된 대형 이미지 센서를 지원하고 PL, 소니 E, 캐논 EF 마운트에 대응하며 드론, 짐벌 등의 장비와도 손쉽게 호환된다.

아울러 탄소섬유를 적용해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경량화를 실현했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 8K를 지원하는 뛰어난 해상력과 독자적인 X-코팅 기술을 통해 렌즈 자체 및 내부의 빛 반사를 효과적으로 제어했고, 플레어와 고스트를 적절히 활용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아시아나

"42만원으로 뉴욕 간다" 특가 프로모션 진행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증편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부터 20일까지 뉴욕행 왕복 항공권을 14개 국내 주요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42만원대'에 한정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하루 한편 운항하고 있는 인천-뉴욕 노선에 11월 24일부터 매일 2회씩 운항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증편 항공편명인 OZ 224를 기념해 인천-뉴욕 왕복 항공운임 22만4000원의 특가 항공권 224매를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중기부 서울청, ICT 혁신 中企 1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서울중기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사업에 처음 선정된 10개 기업은 ㈜제이씨앤씨, ㈜뷰젬생명공학, ㈜연시스템즈, ㈜아이소, ㈜리얼아이덴티티, 한비젼, ㈜두니코프, ㈜지엠엠씨, ㈜제이앤피인터내셔널, ㈜진코퍼레이션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란 수출활동 목적의 정부 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을 합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등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기청은 서울특화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수출액 최상위 업종인 전기·전자업종 중 ICT산업군 제조기업에 해당하거나 혁신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해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